

주의 나라를 쫓우는 주의지, 이영원의 소식

밍글라바

미얀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대지진 이후에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달이 지나가면서는 만달레이 아마라뿌라의 지진피해를 입은 많은 곳들을 정리를 하고 조금씩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달레이와 아마라뿌라의 교회건물도 파손이 좀 되었지만 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공사비를 더 주는 곳들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4월부터 임시로 철제빔을 사용해서 더 위험하지 않게만 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다 수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진피해와 수리

지진은 우리 안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미얀마로 돌아와서 보니 사람들이 어딘가 집중을 못하고 멍한 것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지진이라는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만달레이와 아마라뿌라 모두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지진이 나던 날의 참혹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의 약간 건너 한 집은 3층으로 지었습니다. 아마라뿌라빛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지었습니다만 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옆집은 한쪽 벽면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찰나를 가르는 것도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 살아있다고 증언할 뿐입니다.



만달레이는 계단에서 외벽에 이르는 곳과 그 아래의 화장실이 많이 부서졌습니다만 철제빔을 화장실과 계단 아래 등에 설치해서 벽을 다시 쌓고 페인트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실 벽을 거의 새로 했고 바깥벽도 다시 하면서 그곳에 타일공사와 화장실 일부 공사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아마라뿌라는 기둥이 하나 완전히 파손되면서 건물의 한가운데가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이것을 수리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그것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싶지않아서

기둥을 새로운 신소재를 수입을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만 하기로 하고 기둥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머지 벽과 물탱크 및 페인트 전기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와 신학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번에 6월 7일에는 사가잉을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는 집회를 했습니다. 6월8일에는 목사님 한분이 잠시 미얀마를 방문하신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는 만달레이와 미얀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진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와 관련있던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양쪽에 식용유 선물을 300개씩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수리와 복음을 나누는 일에 그리고 6월부터 개학해서 다시 시작한 신학교등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상황과 기도제목들

1. 만달레이와 아마라뿌라는 지진의 피해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얀마가 당한 이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일어나서 더욱 구원받게 되도록
2. 만달레이와 아마라뿌라의 남은 수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유치원, 방과후학교와 예배와 작은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3. 6월부터 시작된 신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아직은 수리를 하면서 한쪽에서 강의하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만 은혜가 있도록, 외부학생들은 다 돌아가고 우리 출신의 학생들 10명이 남아서 공부 중입니다. 외부학생도 돌아오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준비되어서 미얀마의 복음전도자들이 되도록
4. 저희 온 가정에 은혜가 있고, 저희가 강건하게 하시고 세라는 결혼을 위해서, 누리는 직장을 잘 찾도록

2025년 6월 20일

미얀마에서 감사를 전하며 주의지이영원선교사

후원계좌안내

1. 일반사역후원: 하나은행 099-04-00055-384, 계좌명:주의지이영원
2. MMTC사역을 위한 특별후원: 하나은행 099-04-00057-340, 계좌명: HOPE(MMTC)
HOPE 사무실의 재정관련 연락처: finance@canpeople.com , 070-4006-5300